전문 대학원 및 국어 교사 임용 시험과 국어 능력

최지현 · 서원대학교

I. 국어 능력의 위계적 설정의 문제 상황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장난처럼 다투고 있다. 우연히 이런 말이 들린다. “아니, 뭐 초졸 밖에 안 되면서!” 곧장 대꾸하는 말이 따라 선다. “너도 초졸이잖아.” 말인 즉 바른 말이고, 그렇다고 상대의 저학력을 빈정거리거나 편잔을 주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중학생은 초졸이고, 모든 고등학생은 중졸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아직 대학 수준의 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언어 영역 문제 수준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국어 능력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능 언어 영역 문제 수준의 국어 능력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따질 것도 없는 모순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대학 수학 능력은 아직 대학 수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 수준의 국어 능력이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의 문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으로 규정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이 글에서는 전문 대학원 입학에 요구되는 국어 능력 수준과 국어 교사로서 요구되는 국어 능력 수준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수준의 국어 능력이나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 대학 졸업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국어 능력과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변별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전문 대학원의 경우 법학 전문 대학원을 대상으로 삼고, 전문 대학원 수학이나 국어 교사 임용 등에 요구되는 국어 능력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 도구로 '법학 적성 시험'과 '중등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의 관련 영역이나 과목을 특정하여 다룰 것이다.(이하 '법학 적성 시험', '중등 교사 임용 시험')

II. 전문 대학원 진학 및 국어 교사 임용에 요구되는 국어 능력

1. 전문 대학원의 경우

법학 전문 대학원은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전문 대학원이다. 2007년 기존의 사법 시험과 사법 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 대학원 양성 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통과되어, 이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시험은 법학 전문 대학원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선발 시험이라기보다는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는 2009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결과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법학 적성 시험을 법학 전문 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로 규정하고, 그 시험의 수준을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의 보편적인 개념과 소재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내용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추리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의 수학 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능력과 소양을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 이상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차원적 사고력으로 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국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공적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글들을 독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특기할 만하다. 이를 통해 짐작해 보면,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국어 능력은 ‘심층 독해 능력’과 ‘종합적 이해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라 할 수 있다.

2.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경우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은 중등학교의 각 교과목(선발 교과 표시 과목)에 대응하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등학교의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선발 임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을 가리킨다. 국가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 교육 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며, 2008년부터는 1차 선택형 지필 평가, 2차 논술형 평가, 3차 면접 및 수업 시연 평가 등으로 출제 방식이 세분화되었다.

이 시험에서 중등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은 표시 과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적 영역에서의 국어 능력은 일차적으로는 국어과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가리킨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교육 활동 역시 전문성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교사 일반의 국어 능력도 이에 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차로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 형식을 통해 이를 개관해 볼 수 있겠는데, 국어과 교사의 교과 전문성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인 언어사회의 언어 사용의 규범과 다양성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국어 지식과 기능,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국어 지식과 기능, 그리고 성인 언어사회의 언어문화와 학생들의 언어문화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교수법적 언어 운용 능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자체에는 교사 일반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평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측정하거나 평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들에서는 이 능력은 평가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전문적 직능에서의 국어 능력

앞서 살펴보았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중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복무하기 위해 필요한 국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전문적 능력'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 이전 단계의 국어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으로는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중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복무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전문적 능력으로서 국어 능력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까? 그리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국어 능력은 또 어떠한지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우선 법학 적성 시험과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국어 능력' 관련 시험 형식을 정리해 봄으로써 전문적 능력으로서 국어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요소들과 구현되는 양상들에 대해 이해해 보기로 하자.

법학 적성 시험은 이 능력의 측정을 위해 '언어 이해'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시험의 '언어 이해' 영역에 설정된 요구 능력의 수준과 범위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특정 전공의 배경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

야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평가 장면을 구성하게 하였지만, 풍부한 독서 체험은 분명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풍부한 독서 체험이 단지 독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기여하지 않고 독서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함께 심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인데, 수리 논항이나 다른 기호들과 달리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더 많은 배경지식은 확실히 이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대학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전제도 실제 평가 장면에서는 모호하게 작용한다. ‘대학 교육 과정의 정상적 이수’의 의미는 앞으로도 사회적 공통감(societal consensus)을 축적해야 할 부분인바, 현실에서는 시험 출제를 하는 출제진들의 공통감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시험의 난도(level of difficulty)가 일관하여 유지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가 밝히고 있는바, 언어 이해 영역의 성격이 언어 이해 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함께 측정하는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독해의 능력 수준이 아닌, 통합적 심층 독해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이 심층 독해 능력은, 말하자면,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수행과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언어의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능력이다. 참고로, 이러한 이유에서 ‘추리 논증’ 영역과 ‘논술’ 영역에도 국어 능력을 이루는 일부 요소를 평가 내용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¹⁾

법학 적성 시험의 ‘언어 이해’ 영역은 내용 영역으로는 국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그리고 문학·예술을 두고 있고, 인지 활동 유형으로는 어휘, 분석, 추론, 비판, 창의 등을 두고 있다. 다양한 내용 영역이 설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1) ‘추리 논증’ 영역에서는 언어 추리라든가, 고급한 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논변을 다루고 있고, ‘논술’ 영역에서는 구성 부분이 언어 조직과 표현이라는 쓰기 능력을 다루고 있다.

읽기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글을 접하게 될 때 이를 정확히, 혹은 합당하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제 지문으로 선택되는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특정한 전공 이수 유무에 따라 중대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영역의 주제들은 공적 가치를 갖는 것들을 우선으로 했다.

(가) 13.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미술사학에 대한 신미술사학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적 가치의 기주이 상대적이라고 전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론을 수용하기 어렵다.
- ② 예술적 천재에 대한 믿음에 근거함으로써,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등 다층적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 ③ 작품의 해석에서 상징을 고정된 의미로 풀이함으로써, 전통적 상징체계를 따르지 않는 현대 미술 작품의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 ④ 작품 생산의 다양한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화가의 내면 세계나 작품의 사회적 맥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작품의 이해와 해석이 어렵다.
- ⑤ 주제를 담아내는 형식의 완벽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자유로운 상상력 등 형식 이외의 가치 역시 중시하는 현대 미술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나)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은 듯 있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가)와 (나)는 각기 어떤 시험을 보여주는가. (나)의 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이것이 법학 적성 시험의 예일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는 법학 적성 시험의 문항, (나)는 이에 대응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유사 문항이다. 물론 모든 문항이 이렇게 역전되어 있거나 수준 차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난도가 높다는 것과 요구하는 국어 능력 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존재할 때에는 당연히 심층 독해 능력을 측정한다는 시험의 기본 취지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만다.

한편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국어과 시험에서는 3단계에 걸친 모든 과목들이 국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고급한 심층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관여하므로 법학 적성 시험과는 사뭇 다른 평가 장면이 만들어진다.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국어과 시험에서는 1단계의 선택형 평가나 2단계의 논술형 평가가 모두 국어 기능 영역, 문법 영역, 문학 영역으로 대별되는 내용 영역을 지닌다.²⁾ 이러한 까닭에 심층 독해력과 의사소통 능력,

2) 이러한 내용 영역은 '기본 이수 과목'에 근거하고 있다.: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종합적 사고력 같은 고급한 일반 능력을 측정하는 법학 적성 시험과는 달리 언어에 대한 지식과 그것의 적용·수행 차원인 기능이 직접적인 평가 내용이 된다.³⁾

(다) 35. 시의 심상을 중심으로 하여 (가)와 (나)를 감상하고자 한다. 시 전체의 의미 맥락에서 '눈'의 의미를 비교·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길'의 부재와 연결된 '성긴 눈'의 심상과 (나)의 '바람'에 의지한 '젖은 눈'의 심상은 현재에 대한 불안 의식과 초월 의지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가)의 '눈'은 소멸의 심상으로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절망을 보여주지만, (나)의 '눈'은 생성의 심상으로 그러한 현실을 일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가)에서 떠다니는 '눈'의 심상이 안주하지 못하는 화자의 의식을 대변한다면, (나)에서 '눈'은 '물방울'의 심상으로 변화함으로써 '그대'와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 ④ (가)에서 '눈'은 유년의 행복한 화해 공간을 지향하는 매개체로 나타나지만, (나)에서 '눈'은 '바람'에 구속된 존재의 심상으로 나타남으로써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⑤ (가)와 (나)의 '눈'은 정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가)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보여 주는 데 비해, (나)에서는 근원으로의 회귀를 매개하고 있다.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3) 반면, 언어를 부리는 방식들은 동원되기는 하지만 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곧 교수 언어에 대한 평가는 이 시험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국어과 교사를 포함하여 교사 일반에 공통적이다.

(라)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다)와 (라) 역시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이 요구하는 심층 독해 능력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대학 수학 능력의 능력 수준 차이를 설정하기 어렵다. 35번이 중등 교사 임용 시험, 36번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예이다. 이 두 문제를 놓고 보면, 심층 독해력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추정하기 어렵다. 35번은 심상을 통해 내용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36번은 서로 다른 작품으로부터 뽑은 시 구절을 대비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난도 자체로도 추상적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라)가 더 높은 사정이지만, 그 반대라고 하더라도 (라)의 심화가 (다)에 가깝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 내용에서 국어 기능, 문법, 문학 등이 대별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어 교사로서 중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내용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이 내용 영역에서 규정된다기보다는 그것의 (학문적, 정책적, 문제 상황적) 배경 지식들에서 규정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어떤 시 작품의 심상(image)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다' 같은 평가 내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심상 관련 문항들의 수준과는 변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란, 그보다는 '심상의 기능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라든가, '심상 이해가 시상 파악과 동반해야 하는 까닭'이라든가, 또는 '시인이 특정한 심상을 동원한 배경'이라든가 하는 배경 지식 부분이다. 그렇다면,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중등학교 국어 교사의 국어 능력을 적합하게 요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보면, 현재의 내용 영역 설정은 부정확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국어 지식⁴⁾의 평가, 국어 기능 수행의 평가, 초인지적 판단의 평가 같은 것들이 내용 영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법학 적성 시험과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법학 적성 시험은 그 이전 단계로 여겨지는 국어 능력과 시험이 요구하는 국어 능력 사이에 평가 수준의 위계성을 설정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강 용어화하자면, '독립적, 능동적 독해 능력'(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을 때 기대되는 언어 이해 능력), '고등 사고력 → 고등 독해 능력'(대학 수학을 위한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 사고력 → 심층 독해 능력'(법학 적성 시험에 요구되는 언어 이해 능력) 등으로 위계화된다. 실제 시험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법학 적성 시험이 각기 평가하고자 하는 독해 능력 수준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고등과 심층 사이의 위계상의 차이를 명백하게 설정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이전 수준의 국어 능력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시험은 법학 적성 시험과 달리 교육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능력 수준의 심급이 나뉘지도 않고, 시험 전후로 심급이 구분되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 적성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목표 분류를 따르는 것처럼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국어과 시험은 중등학교 국어과 내용 영역에 근거하여 목표 분류를 한다. 이것이 중등학교 국어 교사에게 기대되는 국어 능력의 위상이 명료하지 못한 까닭이다.

4) 이 경우 이 표현은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Ⅲ. 측정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가되어야 할 능력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의 배움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길러내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중등 국어 교사 임용 시험에서의 선발은 국어 교사로서 교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두 과정은 전문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시험 과정인 법학 적성 시험과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을 거치게 하고 있고, 그 시험 과정 안에서 전문적 수준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나 과목을 갖추고 있다. 이 영역이나 단계 개념을 통해 선택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법학 적성 시험의 '언어 이해' 영역은 어휘·어법 능력을 평가하는 단독형 문항과 내용 영역별로 2~3문항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독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휘·어법에서 전문적 국어 능력을 뒷받침하는 수준 높은 문항들이 개발되지는 못했고, 기왕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유사한 문항을 재구성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실정이다. 반면 독해 문항 세트는 다양한 내용 분야의 구조화된 글을 제제로 삼아 제법 난도가 있는 문제들을 출제해 왔다. 다만 이 역시 문항 유형이 아직 평이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독해 능력이나 문고자 하는 사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지문의 함량이나 분량에 난도나 변별도 모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언어 이해' 영역은 독해력 측정에 초점이 있어서 전문적 국어 능력의 수준과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⁵⁾

'언어 이해' 영역만 놓고 보면, 분석적, 비판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항들

5) 시야를 넓혀 보면, 3교시의 '논술' 영역은 분석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과 함께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사고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모두 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보면, '논술' 영역의 문항 설계를 '언어 이해' 영역과 통합하여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양 측면으로서 평가 내용을 설정할 때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은 미세한 차이까지 분석되고 점검되면서 문항의 난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해석적, 창의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평이하여 심층 독해력 측정의 성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독해력에 치중된 국어 능력이 문제되는 가운데서도 주로 측정되는 능력은 그보다 더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심층 독해력이 뜻하는 바를 대강 윤곽 지을 수 있도록 출제 문항의 전형을 만들고 있는 예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그 예이다.

- 두어 개의 핵심 개념들이 조직해 내는 사고의 범주를 지문의 열개로 삼는다.
 - 제한된 지문의 길이에 비해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 논쟁적이고 입체적인 논지 흐름을 갖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 지문에서 다루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접근 방법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한다.
- 흥미로운 고전 텍스트를 취하여 지문으로 삼는다.
 - 고전적 주제를 다룬 근현대의 정진급 텍스트를 개발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의 내면화를 돕는다.

이것들은 주로 지문 선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수학할 예비 법조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 국어 능력의 수준이나 방향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등 교사 임용 시험 또한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 측정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사로서 지녀야 할 국어과 전공 지식(교과 지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이를 국어 교육의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이 지식의 산출과 적용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식이 국어 사용 기능과 문법, 그리고 문학에 근거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중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 수학 예비생들의 국어 능력과 어떻게 변별되는지 종종 혼동이 발생한다. 여기에 예비 중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실천적 교수 역량이 국어 능력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선택형이나 응답 제한형으로 출제되는 1단계 시험에서는 이른바 교과 교육학이 30~3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교과교육학은 교수 기술과는 구분되지만, 교수 언어로서 국어 능력의 주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등학교 국어 교사의 전문적 국어 능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어 교사의 국어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교과교육학 내용은 정상적인 교사 양성 과정에서 획득된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IV. 직업 세계에서 국어 능력 평가의 가능성 진단

이 글에서는 전문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그리고 중등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의 수준과 양상을 점검해 보았다. 이 두 경우의 국어 능력은 모두 '전문성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앞의 세 글이 청소년과 성인의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달의 수준과 경로가 교육 과정 등을 통해 밝혀져 있는 데 반해, 이 두 경우의 국어 능력은 이를 가늠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 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적 수준의 국어 능력과 그 이전 수준의 국어 능력 간의 구체적인 변별 지점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이를 발달시키거나 평가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현실 이전에 당위가 논의를 정당화하고 또한 그 당위가 국어 능력을 그 이전 수준과 변별하도록 요구하는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간단히 답해 본다. 우선 이론적으로 전문적 국어 능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국어 능력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설정된다. 주로 심층 독해 능력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고 관련 시험에서도 그것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이 능력에는 심층 독해 능력 말고도 종합적 표현 능력이 설정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설정된 평가가 이전 수준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다른 평가들과 변별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종합적 표현 능력을 다루는 시험은 심층 독해 능력과 분리되어 있다. 그 때문에 ‘논술’이 전문적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형식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언어 이해’ 영역을 심층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내용 영역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이치로 판단된다.

국어 능력 차원에서 전문성의 수준은 깊이 있는 사고와 이에 근거한 통합적 언어 사용을 통해 제약되거나 심화된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전문성은 풍부한 독서 체험에 의해 가장 든든히 지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독서 체험은 오래 동안 영향이 미치기도 하지만,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로는 국어 능력을 더 심화시킬 다른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보면 거의 유일한 학습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사실은 전문적 국어 능력의 평가 가능성과 대응하고 있다. 전문적 국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보다 더 풍부한 지문의 함량과 분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적 문제 해결보다는 통합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평가 문항이 개발될 필요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물론 표현 능력의 측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주훈 외(2006), ‘법학 적성 시험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 CRE 200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영진(2008),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읽기와 쓰기 문항에 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pp. 5~24.
- 박정일·정희모(2008), '법학 적성 시험과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 "2008 춘계 워크샵", 한국사교외표현학회. pp.11~25.
- 백순근 외(2007), '200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이주행(1999), '한국 사회계층별 언어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7권 1호, pp.51~76.
- 조윤형(2007), '수능 언어 영역의 '평가목표' 진술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